

하루 한가지 착한 일, 금싸라기 모여 금덩이 이룬다

군포 정해사 조실 성해 스님



성해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19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계했다. 이후 스님은 속리산 범주사, 회양산 봉암사, 오대산 상원사 등 전국의 선원에서 수행했다. 자유중국 현장불학원에서 삼장법사(불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스님은 선학원 중앙선원장 등을 거쳐 미주불교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완연한 봄, 서울 도심 도로는 겨울처럼 삭막하다. 씩 없는 정제, 가다사다를 반복하기를 1시간이 훌쩍 넘었다. 서울 종로에서 군포 정해사까지는 그렇게 지루했다.

불가에는 불도(佛道)를 찾아 부처가 되는 과정을 10단계의 그림으로 설명한 심우도(尋牛圖)가 있다. 심우도는 수행자들이 불교에 입문해 수행을 통해 부처[佛]의 경지에 이르는 '각(覺 :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다. 심우도는 중국 송대(宋代) 보명(普明)과 곽암(郭庵) 두 스님에 의해 그려지기 시작했다. 두 가지 이본(異本)이 있어 곽암의 심우도를 심우도(十牛圖)라 하고, 보명의 심우도를 목우도(牧牛圖)라 했다. 한국에는 곽암의 심우도가 전해져 오고 있으며, 보명의 목우도는 글만 전한다.

흔히 알려진 곽암(郭庵)의 심우도(十牛圖)는 △심우(尋牛): 소를 찾다 △견적(見跡): 발자국을 보다 △견우(見牛): 소를 보다 △득우(得牛): 소를 얻다 △목우(牧牛): 소를 기르다 △기우귀가(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망우존인(忘牛存人): 소와 사람, 둘 다 잊다 △반본환원(返本還源):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다 △입전수수(入塵垂手):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뉜다.

도심에서 포교하는 것은 저자거리에서 자비의 손을 드리우는(入塵垂手) 것에 비유되곤 한다. 군포 정해사 조실 성해 스님의 삶은 입전수수 그 자체이다.

소년은 어려서 모친의 손에 이끌려 부처님 법을 만났다. 집이 워낙 시골이라 학교가 근처에 없었다. 어머니는 소년을 가르치기 위해 포교당에 하숙시키다시피 맡겼다. 그래도 학교는 멀었다. 소년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왕복 30리를, 중학교는 왕복 40리 길을 걸어 통학했다.

학교 다녀온 소년에게 하루는 주지스님이 물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려느냐?" 소년이 답했다.

"큰사람 돼야죠." 주지스님이 말했다.

"큰사람이 되려면 글공부를 해야지."

소년은 "스님, 큰사람되는 공부를 알려주세요."

그 길로 소년은 부산 범어사로 갔다. 13세에 출가를 했다. 일도(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해 스님은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석암 스님에게서는 비구계를 받으며 어엿한 스님이 됐다.

큰사람이 된다는 소년은 어떻게 스님이 됐을까? "김구 선생이 마곡사에서 큰사람되려고 공부했다"는 주지스님의 말에 솔깃했다. 김구 선생은 당시 남북통일을 이뤘다며 국민의 선망이 두터웠다.

성해 스님의 속가나이 17살, 범주사에 머물 때였다. 중절모를 쓴 신사가 찾아왔다. 그는 미국 대학교 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슈" "제네랄" 등 쏟아지는 영어는 어린 성해 스님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스님" "그 신사는 한국말을 못알아 듣고, 스님은 영어를 못알아들었지만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신사와의 짧은 만남

은 성해 스님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 길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려려면 현대학문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서울 대각사에서 통학했습니다."

성해 스님은 고등학교 진학을 전후해 여러 강원에서 내전(內典)을 마친 터였다.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불국사 범주사를 비롯해 선학원 중앙총림 강원까지.

선학원 중앙총림을 나오고 얼마나 지났을까. 곽암 스님이 조계종 종정을 지내던 때였다. 스님은 포교에 힘써달라는 종단의 부름에 중앙포교사로 임명됐다. 스님의 경학 수준은 남달랐다. 포교 마인드는 더 달랐기에 지구촌공생회 월주 스님, 마곡사 진경 스님 등의 추천으로 포교화술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30대 중반에 스님은 제주 천왕사 주지를 지냈다. 그곳에서 스님은 '10·27법난'을 만났다. 성해 스님은 당시 관음사 주지였던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과 함께 군부에 강제 연행돼 상당기간 구금당했다. 강제로 주지 사표를 쓰고 나왔다. 군부가 뒤집어씌웠던 죄목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총무원에 해성 스님 등과 함께 성해 스님을 체포도첩시켰다.

미국 맨해튼 한복판에 뉴욕 성불사 창건 시주함서 1달러짜리로만 빵 먹으며 생활

갈 곳이 없던 스님은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선학원을 찾았다. 조계사·불국사 주지 등을 지냈던 범행 스님이 10·27법난 동기(?)였던 인연으로 스님은 선학원에 작은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대중들로부터 체포도첩된 사실이 문제가 됐다. 결국 스님은 범행 스님의 도움으로 다시 수원 팔달사로 옮겨졌다.

수원 팔달사로 옮기기 전 스님은 낮이면 절을 비웠다. 대중들의 눈을 피해서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낮에는 선학원을 나와 붓글씨를 쓰다 밤이면 돌아와 잠만 잤다. 날마다 붓글씨를 쓰니 실력이 늘었다. 어려서 큰스님들로부터 경학은 큰 도움이 됐다.

성해 스님의 붓글씨가 소문이 나면서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스님은 뉴욕 성불사 도철 스님의 도움으로 뉴욕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성해 스님은 붓글씨 전시회 뿐 아니라 보스톤 등 미국을 돌며 법문도 했다. 하버드대와 MIT공대에서는 '첨단과학과 화엄'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송산 스님을 만났다. "국제포교를 해야겠다" 하니 송산 스님이 흔쾌히 허락했다.

"뉴욕 조계사 주지를 지내며 한인 교포 세계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포교의 꿈을 키우고 이뤄왔습니다."

해외포교는 쉽지 않았다. 스님은 미국인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면 부처님 당시의 불교부터 제대로

로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인도·태국 등을 성지순례했다. 성지순례하면서도 스님은 붓을 놓지 않았다.

성해 스님은 성지순례를 한 6개월 여 동안의 붓글씨만을 모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귀국전을 열기도 했다. 1985년 12월이었다.

성해 스님은 제주와 인연이 깊다. 제주시에만 관음사와 관음사 포교당이 있을 뿐 남제주인 서귀포에는 조계종 사찰이 없던 시절(현재는 약천사 법화사가 있다), 스님은 제주 탐라선원을 손수 일했다.

섬 불교 특성상 제주불교는 열매만 인기가 있었다. 법문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런 환경에서 스님은 법문을 했다.

"당시 제주불교는 열약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제주 일주를 하며 사찰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오전 11시가 됐을까, 한 절에 갔는데 웬 남자가 잠옷을 입고 애기를 입고 법당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주지였습니다."

성해 스님은 "제주에는 매물화상(부처를 팔아 자기 생활하는 스님)이 많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남제주에 절다운 절을 만들겠다는 원을 세웠다. 제주 동명백화점 예식장에서 한 달에 2번씩 법회를 열었다. 성해 스님의 법문은 제주 불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불자로부터 200여 평 땅을 시주 받았다. 이 땅에 스님은 탐라선원을 세웠다. 성해 스님은 주머니의 찌꺼기 7만원으로 권선문을 만들어 돌렸다. 그렇게 모아진 시주금으로 탐라선원은 지어졌다. 하지만 탐라선원 불사가 7만원짜리 권선문만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천왕사 주지를 지내면서 선지식을 초청해 법회를 열었습니다. 1000일 기도를 하며 100일 회향마다 큰스님들을 모셨습니다." 탐라선원 불사는 성황리에 끝났다. 낙성법회에 1500여 사부대중이 모였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송산 스님에게 약속했던 미주 포교를 위해서였다.

뉴욕 맨해튼 엔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옆에 포교당을 개설했다. 뉴욕 불국사였다.

"제대로 포교하려면 세계 심장부에 자리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이 제격이었습니다."

뉴욕 불국사를 창건한 성해 스님의 생활은 스님이 세운 원칙에 따랐다. 시주함에 1달러 짜리가 들어오는 것을 모아 생활을 했다. 5달러 이상의 고액(?)권이 들어오면 모아 집세를 냈다. 1달러 짜리가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먹고 살아야 했다. 빵을 사먹다 돈이 떨어지면 물로 배를 채웠다. 스님의 정성이 이리니 신도가 안 모일 리 없었다. 3년 만에 신도가 300명이 됐다.

뉴욕 불국사가 뉴욕 사회에서 자리 잡자 스님은 바로 독일로 건너갔다. 그곳에 독일 흥불원을 개설했다. 그 이듬해에는 미국 뉴저지에 미주 국제선원을 창건했다. 1999년 스님은 뉴욕에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크게 알리는 이벤트를 열었다. 국제 불축퍼레이드가 그것. 성해 스님이 1999년 시작한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 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흥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신세계로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않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

자동차 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일이 없는 오늘날도 안병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날리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툴 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이치 알면 모든 어려움 사라져

이래 지금까지 뉴욕에서는 해마다 봉축퍼레이드가 열린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1600년 역사지만 궁중·귀족불교가 그 시작이었다”라면서 “미국 등 서구에서는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불법이 흥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등 명문대학에 불교 학회회는 없어도 불교학과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식인들은 기복이 아닌 수행의 가르침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개신교, 유대교 등에서 신을 통한 기복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성해 스님은 “송산 스님 제자인 하버드대 출신 현각 스님, 예일대 출신 무량 스님 등이 범문할 때면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듯 현각이 불교에 귀의한 것은 미국불교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해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이 아직도 불교를 기복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복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형태입니다. 어디까지 기도하면 영험이 빨리 온다는 말만 들리면 올바른 종교생활을 뒤로하고 그 영험을 빨리 보기 위해 심지어 종교까지도 바꾸게 합니다.”

스님은 어떤 종교를 믿던 교리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리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종교를 믿던 맹종이나 맹신하게 되는 불안한 신앙형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성해 스님은 “교리를 제대로 알면 유사 종교나 사아비 종교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특히 불교를 배우다 보면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자력신앙이다. 스님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력신앙인 동시에 참선”이라고 말했다.

“선리(禪理)를 무장해서 선문(禪門)에 들어오면 결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 자주 가던 곳을 방문할 때 쉽게 그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목적지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참선도 이와 같습니다. 선리(禪理)를 알고 나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성해 스님은 “참선공부는 낮 놓고 7자도 모르는 사람부터 박사까지, 밤낮, 동서, 노소, 남녀의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선공부”라고 강조했다. 참선은 책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스님은 “어린아이가 3년, 5년만 참선을 잘 해 놓으면 이미 인격이 무척이나 훌륭하게 70살 할 때까지도 합부로 반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돈으로 뒷사람 노릇을 한다해도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도 지위를 내놓으면 허망합니다. 그러나 참선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면 나이를 먹는 만큼 그에 대한 힘이 생깁니다.”

스님은 참선에는 꾸준한 것이 제일이라고 했다.

“자신의 근기가 약하고 지체가 부족하다라도 1년 해서 안되면 10년은 해야지, 그것도 안되면 일생을,



아니 다음 생각이라도 꾸준히 참선을 해야겠다고 원력을 내세요. 사람의 일이 될 듯 하다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해 스님은 “한 두번 하다가 힘들다고 마음의 고삐를 늦추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겠다는 초지일관의 마음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번뇌망상을 떨쳐 버리기 위해, 참선을 통해 피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참선이기 때문입니다. 참선의 묘미는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선리(禪理)로 무장될 때까지, 참선의 자세가 몸에 익을 때까지 마음 바귀 먹지 말고 참선을 한번 내지 하기에 보십시오.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스님은 최근 지혜인(智慧人)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돈·학식·명예 등을 좇기보다는 지혜있게 세상을 사는 지혜인이 되자는 것. 이를 위해 스님은 하루 한 가지 선행하는 ‘일일일선(一日一善)’ 운동도 함께 펼친다.

“하루 한가지 착한 일은 금짜라기와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금짜라기가 모인다면 1달 1년 10년 후에는 금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번뇌망상을 떨쳐 버리기 위해, 참선을 통해 피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참선이기 때문입니다. 참선의 묘미는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선리(禪理)로 무장될 때까지, 참선의 자세가 몸에 익을 때까지 마음 바귀 먹지 말고 참선을 한번 내지 하기에 보십시오.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백재환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평상심이 도니라



길. 사람은 길을 간다. 대지에는 길이 있다. 그 길의 유형은 여러 모양을 하고 있다. 널따랗게 주욱 뻗은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나그네가 옛 정취를 자아내기에 그지없는 오솔길도 있다. 심지어 산행길에서는 길이 없어 밭출에 몸을 의탁하여 오르내리기도 하는 험준한 길도 만나게 된다. 모든 길에는 이정표가 있기 마련이다.

길이란게 걷는 사람의 외부에만 존재할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었던 나만의 비밀스러운 길도 있다. 그런데 인생길에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디쯤 가고 있으며, 언제쯤 종착역에 당도하는지 감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인생길의 난해한 해답을 성인들은 도(道)에서 찾아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도를 닦으면 그 결과가 마치 모든 현안이 영킨 실타레가 술술 풀리듯 풀린다고 보았음직하

니고 있다. 지칠 줄 모르고 질주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선사들이 평상심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시비선악, 오호미주(惡好美醜)가 탈락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한다. 이러한 마음이 곧 도라고 규명하고 있다.

부처님이 힘주어 가르친 사성제(四聖諦)가 있다. 곧 고집멸도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도는 mārga라고 한다. 동사는 mārg이다. 이는 ‘탐구하다’ 혹은 ‘노력해서 얻다’, ‘정화하다’는 뜻에서 온 말이다. 고속도로는 rathya이고 오솔길은 patha이다. 한자(漢字)로 길 도(道)라고 표현하고 보면 아마 사성제의 도제(道諦)는 오리무중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는 번역의 오류라기보다 번역의 한계라고 할 도리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짚어 나는 대로 정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언어의 구조가 제각기 다르고 문화적 습속이 판이한 데에서 오는 한계를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시비 선악 등 분별없는 마음이 평상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가 곧 도

다. 그래서 도를 닦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뇌리속에 영속적인 나선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도는 쉽게 체득되지 않는다. 마치 신기루가 보이나 잡히지 않듯이 말이다. 선사의 경우는 다르다. 마치 ‘아침에 세면하다 코 끝 만지기만큼 쉬운 것이 도’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도가 아닐까 한다.

《무문론》 제19쪽에 ‘평상시도(平常是道)’라는 화두가 있다. 시대는 중국 당나라 때이다. 조주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던 시절, 남전(南泉) 스님을 찾아 ‘도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남전은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평상심이 도’라고 했다.



여기서 평상심이란 중생의 일상생활의 마음이 아니다. 일상에서는 마음작용이 불연속성(不連續性)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마음속에는 항상 크나큰 파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 마음은 그냥 두어도 점점 불어나는 속성을 지

《도덕경》 첫 구절에서 도가비상도(道可道非常道)라 하여 ‘도라고 말하는 도는 영구불변한 도가 아니다’고 규명하고, 이는 언어를 초월한 존재라 하였다. 유교의 도는 도덕적인 규범을 의미하며, 유교의 도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도(常道)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필자는 길을 걸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면면을 보게 된다. 보행의 문제다. 보행자가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을 하자는 캠페인이 도처에 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를 도의시하고 의식 없이 좌측통행을 일삼고 있다. 사람이 무엇에 길들여졌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익힌 습에서 벗어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익혀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안다. 도를 이루기 위해 몸을 조복(調伏) 받는 일 보아야 쉬울터이니 우측통행 좀 합시다. 법규를 지키는 보행자의 사고에 팔팔거릴 이 사라지게.

동국대 선학과 교수

여전히 편찮으십니까? 아프십니까?

무병장수를 향한 비범한 집념이 빛은 명품

“본 제품 ‘수리 시리즈’는, 전대 약초 연구의 권위자이자 수천년 전승 과정에서 걸러지고 검증된 전통요법 2만여 가지 및 양생법을 총집대성, 무병장수 실현을 위한 각종 기능성식품 및 신약(新藥)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념비적 대저(大著) 《의생양술(益生養術)》의 저자가 천연물에 내재된 혹은 상호간 작용하는 약리(藥理) 메커니즘을 풀어 독보적 비법을 더해 명필히 농축·조합·가공한 것으로서, 복용 경험자들의 입소문으로 명성을 더하고 있는 더 이상 부연설명이 사족(蛇足)일 수 있는 명품들입니다. 복용해 볼 것을 권하며, 본 제품 질료의 특성상 많은 경우 기대이상 또는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를 얻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이런 증상은 빠른 조치를 요하는 적색경보! ★

- ▶ 목 앞쪽 아래부분이 부었거나 근육통, 손발저림, 피부진조증, 잦은 피로, 기어·정중력이 떨어지거나? 감작성염 혹은 면역세포가 감작성세포를 병균세포로 인식 공격하는 면역질환이 진행될 감작성기능저하증 일수 있으며 지속되면 심장질환, 혼수 등의 치명적 합병증을 부릅니다. 서양의학에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는 질환이며 요오드 등의 다량섭취 등이 알려져 있으나 신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목뒤가 뻣뻣한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사지마비, 20분 이상의 앉기불편증? 고혈압증세 일수 있으며, 악화되면 중풍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며 서양의학은 혈압강하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있어 장기적 사용은 좋지 않으므로 천연물에 의한 치유법이 추세입니다.
- ▶ 계단보행시 무릎관절통, 손가락마디 변형, 조조강직(아침에 뻣뻣해짐), 관절의 급작스런 통증과 함께 붓습니까? 골관절염이 의심되며 허리에 퇴행성관절염이 오는 경우 디스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치료법을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를 유지하게 하거나 극심한 경우 인공관절을 시술하고 있으나 이는 인체자연치유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극단적 처방입니다. 약용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고 있으나 검증된 것은 몇 되지 않습니다.
- ▶ 다음(번드) 방증에 일어나 물음 마신, 다뇨(2,000cc 이상의 소변량), 다식(식사량이 현저히 많아짐), 전신관통감, 갑자기 동통해짐, 쉽게 지로되지 않는 피부종기 및 궤양의 잦은 발생, 시력저하, 손바닥이 붉어지거나 기립성 현훈(일어섰을 때 어지러움), 심한 설사, 변비가 있습니까? 만성적 대사질환인 당뇨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서양의학은 혈당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대처로 치료보다는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전통의학은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아비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 식욕부진, 체중감소, 구역감,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합니까? 간질환의 후기인 간경변일 수 있습니다. 식도정맥의 고혈압을 야기해 쉽게 출혈이 생기며 지방과 비타민의 흡수불능으로 영양불량 및 간기능부전, 간암 같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획기적 개선치료를는 미개발 상태이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초가 전래되고 있습니다.
- ▶ 만성 또는 급성으로 허리 및 다리로 뻣치는 통증이 있거나 통증과 함께 감각이상, 근력약화 증상-배변·배뇨기능의 변화-이 있습니까? 요통(허리통증)증세이며, 만성으로 악화되면 치료자체가 어렵습니다. 서양의학은 자세교정과 함께 물리치료를, 심하면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원인이 통증이 가지 않으면 전통의학에 의한 해결책을 권합니다.
- ▶ 알레르기 비염의 독특한 4가지 증후 즉, 재채기발작,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이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큼니다. 서양의학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대응하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여주는 정도 외에 특별한 치유책을 갖고 있지 않아 전통의학으로 성과를 보는 경우가 많입니다.

노력했으나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분을 위한 의생 프로젝트의 독보적 성과!		
1. 감수리	감작성에 유효한 천연약재를 주재(主材)로 한 복용식품	1,400정×2/ 1일2회 15~20정/ 148,000원
2. 고손이	고혈압에	1,400정×2/ 1일2회 20~25정/ 154,000원
3. 관술리	관절염에	1,400정×2/ 1일2회 20~25정/ 175,000원
4. 다수리	골다공증에	1,400정×2/ 1일2회 20~25정/ 155,000원
5. 당수리	당뇨에	1,400정×2/ 1일2회 20~25정/ 178,000원
6. 면수리	불면증, 신경쇠약에	1,800정/ 1일2회 20~25정/ 75,000원
7. 번수리	변비 등 대변계통에	1,800정/ 1일2회 15~20정/ 58,000원
8. 안수리	간 질환에	1,400정×2/ 1일2회 20~25정/ 184,000원
9. 오수리	요통(허리통증)에	1,400정×2/ 1일2회 15~20정/ 165,000원
10. 코수리	비염(축농)에	1,400정×2/ 1일2회 20~25정/ 162,000원
11. 행수리	혈액순환에	1,400정×2/ 1일2회 20~25정/ 145,000원
12. 호지정	잦은 설사 및 위장장애에	1,800정/ 1일2회 10~15정/ 65,000원
기려한	기려중진, 허약체질, 병후쇠약에	1,400정×3/ 1일2~3회 20~25정/ 27만원

- 각 제품 공히 최적의 약초 및 천연재료를 엄선, 이상적 조합 및 배합비율로 균형잡힌 순기능적 증진 개선에 도출되도록 했으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

현대판 동의보감 [의생양술] 나왔다
...고급 선 도의인 500여년 정성과 집념이 투영된
...으로 빛을 보게 됐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전
통 민간요법을 집대성한 '의생양술' 이 그것이다. 저
자인 권혁세(71) 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은 해당 전
후 선전도 이렇듯 성공의 신부에게서 신기한 영
험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평생 전공을 찾아다녀 4
만여 가지의 민간요법을 수집하고 이를 핵심요리 기
록했다. (권혁) - 중앙일보 2007.08.28 -

의생양술, 2만 가지 민간요법 공개
...그의 '의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 일간스포츠 2007. 07. 10 -

주요 신문 / 방송사 특집보도!

KBS 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2부 (2007. 10. 16)

MBC TV 9시 뉴스테크 (2007. 09. 21)

권혁세
· 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
· (주)의생 대표
· 저자
- 물이 만병을 이긴다
- 약이 되는 먹물거리
- 병을 치료하는 민간약술
- 의생양술 외